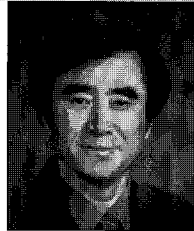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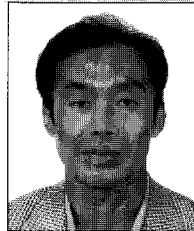


# 조선시대 건축물 재해예방에 대한 사적 고찰

## A Study on the Disaster Mitigation of Buildings in Chosun Dynasty



김 경 표\*



김 덕 문\*\*



김 형 래\*\*\*



신 현 숙\*\*\*\*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연구관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1. 서 론

건축물은 부단히 여러 가지 힘으로부터 파괴의 위협을 받는다. 건축물에 피해를 주는 재해에는 태풍, 지진, 화재, 수해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매년 여름에는 장마가 시작되고 또한 태풍이 통과하는 곳으로 바람과 비에 대한 수재(水災)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반면 화재는 자연에 의한 것보다는 인간의 실수로 인한 실화(失火) 및 방화(放火)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지진(地震)에 대한 대책은 당시로서는 대처가 불가능한 천재지변(天災地變)으로 보았으며 그 피해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으나 지신(地神)이 노(怒)하여 인간에게 주는 결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고사제(告謝祭)를 지내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역대(歷代) 왕조(王朝)의 제왕(帝王)들은 자연의 재해에 대비하려 노력하였으며, 인위적(人爲的)인 재앙(災殃)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재해(災害)는 발생하였으며, 재해가 발생하면 그것을 수습(收拾)하기 위해 진력(盡力)하였다.

이러한 재해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의 문헌자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

히 『조선왕조실록』에는 지역별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고 풍부한 재해관련 기록이 실려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역사 속에 나타난 재해에 대한 연구는 전문 분야별로 단편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sup>1)</sup> 건축학적인 관점에서의 재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기초적 연구로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재해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당시의 재해에 대한 사고 및 재해대책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건축 재해예방기술사에 대한 기초시각

건축의 역사는 실로 다양한 시각의 접근방식이 있다. 남아있는 유구를 철저히 분석·파악하는 실증적 접근이 무엇보다 기본이 되며 집에 관련된 사람들의 생각 즉 사상적 접근도 있을 수 있고 또 집이 어떻게 쓰여 지고 어떤 공간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관심을 둔 공간적 접근도 있다. 집을 만든 사람의 설계 개념에 초점을 맞춘 접근도 있다.<sup>2)</sup> 건

1) 지방분야에서 역사지진을 바탕으로 한 구조물의 거동시험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으며, 수리분야도 문헌기록을 토대로 홍수 기록을 복원하여 과학적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0. p.11

축은 그 시대의 총체적 산물인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이 한국건축사에 대한 연구방법이나 관심이 다양해진 것은 한국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간문명은 자연을 극복하고 보다 운택한 삶을 지향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기반을 주로 농업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농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였다. 홍수나 가뭄, 태풍과 같은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저수지를 만들고 제방을 정비하였으며 각종 수리시설과 도시관로 시설들을 건설해 왔다. 각종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역대 왕조마다 재해를 전담하는 기관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지속적으로 재해에 대한 대비와 재해발생 이후의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재해를 예측하는 지식과 예방에 대한 기술이 존재했음을 뜻한다. 따라서 재해와 관련하여 건축기술사적 측면에서 조명하는 것은 한국건축사의 체계적인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건축 재해예방에 대한 기록

#### 3.1 홍수

##### 3.1.1 기록

조선시대 태조부터 철종까지 조사된 기록들을 보면 큰비(大雨) 283건, 큰물(大水) 177건, 홍수 16건 등이 조사되었다. 큰비라는 항목이 많이 있었고 큰물이라는 표현이 홍수보다 월등히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홍수보다는 큰물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피해 일시, 지역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지방에서 보고한 내용과 중앙정부에서 피해 규모에 따른 조치 기록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시대적으로 보면, 명종(1534)부터 현종(1674)까지 140년간에 다른 기간보다 더 많은 홍수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그 시대에 발생한 모든 중요한 사건을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면, 이 시기에는 다른 기간보다 홍수가 자주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도성에서 발생한 주요 홍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태종 4년(1404)부터 현종 12년(1846)까지 10회의 대홍수 기록이 있다.

조선 초의 태종 4년(1404), 태종 9년(1409), 태종 10년(1410), 태종 18년(1418), 세종 2년(1420), 세조 5년(1459)에 6회의 기록이 있다. 홍수기 발생하면 도성안의 수심이 작게

는 4척에서 많게는 10여 척 가까이 되었으며, 태종 4년과 세종 2년에는 다수의 민가가 파손되고 역사자도 발생하였다. 순조 17년(1817) 7월에는 장마로 인하여 도성안의 5부에서 778채의 민가가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순조 32년(1832)에는 6월 보름부터 7월 초에 이르기까지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없더니, 5부의 민가가 파괴된 것은 3166호였고 죽은 자는 64명이었다고 하였다. 현종 12년(1846) 9월에도 큰 피해가 있었는데, 5부에 무너진 민가가 3900여 호가 된다고 하였다.

#### 3.1.2 대책

재해예방에 대한 대책은 주로 도성(都城)을 중심으로 수립되었고, 각 지방에서도 이를 본따서 운영하였다.

조선왕조의 정치중심 도시였던 한양은 아름다운 주위자연의 지세(地勢)를 배경으로 하고 궁궐과 관아(官衙)를 중심으로 계획되었다. 그런데 도시구성이 홍수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즉, 북악산이나 인왕산, 남산 등지에서 내려와 청계천에 모인 물들이 남산에 막혀 바로 한강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중랑천을 통해 한강으로 흘러 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가 많이 오면 도성 안은 홍수 피해로 몸살을 앓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태종은 삼도(三道)의 군인(5만 2800명)을 동원하여 개천(開川:청계천)을 개착(開鑿)하여서 한양 도심을 흐르는 주요한 기본 배수로를 정비하였다. 태종은 “해마다 장마 비에 시내가 불어나 물이 넘쳐 민가가 침몰되니, 밤낮으로 근심이 되어 개천 길을 열고자 한 지가 오래이다”고 하여 홍수에 대한 근심을 신하들에게 피력하였다.<sup>3)</sup>

세종 3년(1421) 6월 16일에는 “여러날 동안 큰비가 내리니, 반드시 수재(水災)가 있을 것이다. 수문(水門)의 전방(箭防)을 속히 견어치워 수도(水道)를 통하게 하고, 순찰하는 관원과 병조(兵曹)에서는 밤새도록 순시하여, 사람을 죽는 데 이르게 하지 말라.”하여 큰 비로 인한 수재 대책을 명하였다.<sup>4)</sup>

또한 세종 23년(1441)에는 홍수에 대비하고자 측우기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측정 기준을 마련하고 강우량을 측정했다. 비가 오기 시작한 시간, 그친 시간, 측우기에 측정된 물의 깊이를 일일이 기록하여 보고하고, 이를 자료화해 다음 해 측량에 활용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 중심부를 흐르는 청계천과 한강 가에 수표를 세워 하천의 홍수위(洪水位)를 측정함으로써 강수량을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또한 홍수에 의한 범람을 줄이기 위해 하천을 준설하였

3) 태종 22권, 11년(1411 신묘) 윤12월 1일(정사)

4) 세종 12권, 3년(1421, 신축) 6월 16일(정미)



Fig. 1 A Watermark

는데, 『조선왕조실록』에는 80회의 준설에 대한 기록이 있다. 특히 영조 36년(1760)의 청계천 준설사업은 준천사(濬川司)를 두고 오늘날 『공사지』와 같은 성격의 『준천사실(濬川事實)』을 작성하고 서문을 영조가 직접 썼는데, 이 서문을 보면 ‘이후의 준천을 하는 것은 후대의 과제이며, 『준천사실』을 펴내어 필요한 조리와 법 등을 남긴다’고 되어 있다.<sup>5)</sup>

이때 광통교와 수표교 교각에 경진지평(庚辰地平)이라는 글을 새겨 넣어 이후로 이 글자가 안 보일 때까지 매물 되면 준설하도록 하였고, 고종 때까지 이를 지키며 주기적으로 준천공사를 수행했다.

그 외에도 조선시대 고을에 부임한 사또는 제일 먼저 산에 갈참나무를 심고, 강주변에 독을 쌓았다. 갈참나무는 나무 중 가장 물을 많이 머금은 나무로 알려져 있어, 역시 홍수에 대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홍수의 피해는 지금보다도 극심할 수밖에 없었으며, 홍수피해가 나면 나라에서 구휼하는 것에 진력을 다하였다.

### 3.2 가뭄

#### 3.2.1 기록

『조선왕조실록』 중 태조부터 순종(1392~1910)까지 가뭄에 대해 검색한 결과, 가뭄 3천173건, 한발(旱魃) 93건, 한해(旱害) 63건, 기아 118건, 흉년 5천948건, 한재(旱災) 1천766건, 기근 1천657건 등 총 1만2천800여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다.

검색기록을 보면 세종·성종·중종·효종·현종·영조·정조 시기에는 기록이 많이 있으며, 조선후기인 순조·헌종·철종 시기에는 비교적 기록 수가 그 이전에 못미친다. 이는 왕의 재위기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해를 거듭해 연간 가뭄기록 건수가 10회 이상인 기록들도 보이는데 태종(14~16년), 세종(17~18년, 21~22년, 25

~27년), 성종(5~6년, 12~13년, 16~18년, 21~22년, 24~25년), 중종(4~5년, 9~12년, 20~24년, 27~28년, 34~37년), 명종(8~10년, 14~15년), 선조(36~37년), 광해군(6~7년), 인조(18~19년), 효종(7~8년), 현종(1~2년), 숙종(3~4년), 영조(47~49년), 정조(5~6년, 22~23년), 고종(13년) 등이다.

『국역증보문헌비고』의 기록을 보면, 490년 동안 총 100회의 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적으로 5년에 한번 꼴로 가뭄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으며, 2년 연속 가뭄은 15회, 3년 연속 가뭄 4회, 4년 연속 가뭄 1회, 6년 연속 가뭄 2회 등 해를 거듭해 가뭄이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효종 8년(1657)부터 현종 3년(1662)까지, 현종 7년(1666)부터 현종 12년(1671)까지는 6년 동안이나 연속해 가뭄이 지속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가뭄에 대한 피해기록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세종 5년(1423년) 4월 16일의 기록을 보면, 경기감사가 보고하기를 ‘경상도 녹전(祿轉)을 조운(漕運)하는 때를 당하여 가뭄으로 말미암아 강물이 얕아져서 배들이 여울을 만나게 되면 통행하지 못하니, 여흥·음죽·이천·천령·지평·양근·광주 등지의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각기 물가에 사는 백성들을 동원하여 여울을 파서 배가 통행하도록 하소서’라는 대목을 볼 수 있다.<sup>6)</sup> 가뭄이 극심해 남한강의 물이 얕아졌기 때문에 경상도의 세금을 남한강의 조운을 통해 서울로 옮기기가 어렵게 되자 하상준설공사를 건의한 것이다.

이처럼 실록에는 가뭄이 심해 하천이 단절되고 여울이 얕아져 건너다닐 수 있었다는 기록들을 볼 수 있다. 선조 36년(1603)에는 평안도의 청천강을 사람들이 걸어서 건널 수 있었고 인조 3년(1625)에는 북도에 가뭄이 들어 두만강이 얕은 여울이 됐으며, 인조 19년(1641)에는 경상도의 가뭄으로 낙동강의 물줄기가 끊겼다고 했다.

또한 현종 4년(1663)에는 경상도에 가뭄이 극심해 상류의 물줄기가 거의 끊기면서 낙동강의 뱃길이 끊겼고, 현종 5년(1664)에는 충청도 영동현의 용당천이 한 나절이나 흐름이 끊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숙종 35년(1709)에는 청주 청천강 물이 끊어졌는데, 청천강은 속리산의 하류이자 달천의 상류로서 근원이 가장 멀어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지만 이날은 5리가량이나 물이 끊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sup>7)</sup>

성종 13년(1482년) 7월 16일에는 경자년부터 농사를 실

5) 영조 95권, 36년(1760 경진) 3월 16일(신유)

6) 세종 20권, 5년(1423 계묘) 4월 16일(병인)

7) 숙종 47권, 35년(1709 기축) 12월 16일(임자)

패했는데 ‘지난해에는 더욱 심하였고 지금도 가뭄이 심하니 장차 올해에도 흉년이 들 것’이라고 했고, 성종 16년(1485)에도 ‘전번 달에 비가 오지 않았고 이번 달에도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여 두 달 이상 비가 오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중종 24년(1529)에는 한발이 심하자 세금을 배길 때 하지하(下之下)로 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고종 때에도 해를 이어 가뭄이 자주 발생했는데, 왕실의 사금고인 내탕고와 선혜청, 사청 등에서 기근 대책비용과 식량을 긴급 조달했다. 조선 말기 이러한 장기간의 가뭄은 외세의 침략과 함께 재정파탄과 국력쇠퇴를 초래하게 되었다.

### 3.2.2 대책

조선시대 지배층의 가뭄에 대한 시각은 ‘사람의 도리를 다 못했을 경우나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한다’는 성리학적 유교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뭄이 발생했을 때 임금은 임금대로, 관리들은 관리대로 자기의 소임을 다 했는지, 사치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원한이 맺힌 사람들이 있나 살피었으며, 기우제를 지냄으로써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자 했다.

또한 가뭄이 심할 때는 전국에 금주령(禁酒令)을 내렸다. 이는 지상(地上)의 물을 최대한으로 아낌과 동시에 곤경에 처해 있는 동안에 술에 취하는 등 경거망동을 삼가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백성의 원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죄인을 용서하고 또 억울한 죄인이 있을지 모르니 죄상을 다시 재판하여 용서해주기도 하였으며, 백성의 고통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궁중의 모든 행사와 음악을 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뭄을 이처럼 소극적으로만 대처한 것은 아니었다.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수리사업을 일으켰고 평상시에도 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의 수령들을 감찰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농서(農書)와 농정(農政)에 대한 신기술 및 정책을 수렴하고자 했으며, 중국과 일본에서 농사에 이용하고 있는 수차(水車)를 도입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 3.3 태풍

### 3.3.1 기록

『조선왕조실록』과 『고종순종실록』에서 찾아본 태풍기록은 모두 177건이나 되었다. 이들을 왕대별로 살펴보면, 명종(1545~1567) 대에 29회로 가장 많았고 정종·문종·단종·예종·경종·철종 때에는 기록이 없었다.

선조 36년(1603)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여 하천이 유실되고 전선(戰船)이 파손되며 가옥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42명이나 되었다.<sup>8)</sup>

선조 38년(1605)에도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였는데,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및 함경도 등지에서 큰 피해가 있었다. 397명이 사망하였으며, 가옥피해는 960여 호를 넘었다.<sup>9)</sup>

또한 지역별 피해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데, 영월 지역에 대해서는 ‘이 달 17일부터 비가 오락가락 하였다.’, ‘동풍이 연일 사납게 불었다.’, ‘22일 다시 큰비가 억수 같이 퍼붓고 바람이 거세지더니, 인가가 339채나 떠내려갔다.’, ‘영월은 상류에서부터 물이 모두 범람하여 횡류하는 재변이 있었다.’, ‘백 년 묵은 1천 장이나 되는 거목이 뿌리째 뽑혀 떠내려갔다.’, ‘시내가 범람하여 떠내려 간 논밭을 이루 헤아리기가 어렵다.’, ‘불시에 고을을 덮쳐 관사(官舍)·군기 및 공해(公廩) 등 여러 처가 일시에 침수되었고 군수는 간신히 피신하였다.’, ‘곡식과 나무는 뿌리 채 뽑히거나 말라붙어 완전히 백사장이 되었다.’고 했다.

강릉지역은 ‘강릉도 공사 가옥이 모두 떠내려가거나 물에 잠겼고 사람도 100여 명이나 익사하였다.’, ‘남대천이 넘쳐서 나무가 뽑히고 집이 부서지니 일시에 떠내려가 처자와 형제 등 일가족이 줄줄이 비뚤러맨 채 죽기도 하였다.’, ‘전답은 천여 석 지기가 모래에 뒤덮였고, 가옥은 크고 작은 것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침수되었다.’, ‘대관령에서 해변까지 기름진 넓은 벌판에는 까마득히 백사로 덮였다.’, ‘익사한 우마가 부지기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8월15일(丁巳)의 기록을 보면 ‘충청좌도와 강원도는 서로 인접해 있으니, 충주의 수로로 원주에 운송해서 강원도의 재해가 심한 곳에 나누어주도록 하라’고 하여 전라도, 충청도의 곡식을 실어다가 풍수해를 당한 타도를 구제하자고 했다.<sup>10)</sup>

또 8월21일(癸亥)의 기록에는 ‘강원도의 수재로 인해 사망한 자들에게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주는 것을 허락 한다’ 등 당시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도의 피해복구 및 지원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sup>11)</sup>

### 3.3.2 대책

비와 함께 바람도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상 현상으로 관심의 대상이었다. 농사에 이로운 바람과 편현상에 의해 봄에 영서 지방에 부는 늙새바람과 같이 농사에 지장을 주는 바람을 정확히 구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풍향측정기를 설치하여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측정하고, 나무가 뽑힐 정도의 바람을 ‘대풍’, 기와가 날라 갈 정도의 바람을 ‘폭풍’으로 구분해 재해로 기록했다. 이밖에 우박·천둥·

8) 선조 164권, 36년(1603 계묘) 7월 20일(갑술)

9) 선조 189권, 38년(1605 을사) 7월 23일(을미)

10) 선조 190권, 38년(1605 을사) 8월 15일(정사)

11) 선조 190권, 38년(1605 을사) 8월 21일(계해)

번개·안개·서리·눈·기온 등도 관찰하였으며, 하늘의 색과 구름 모양, 구름의 움직임 등을 관측하여 비를 비롯한 날씨를 예측하고 기후에 대처하기도 했다.

### 3.4 화재

#### 3.4.1 기록

화재는 대부분 인간의 부주의에 의한 실화(失火) 또는 어떠한 원한관계에 의한 방화(放火)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화재 중에서 비교적 큰 화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 3.4.2 대책

방재대책은 대화재가 발생한 후에 대부분 수립되었다. 특히 세종 8년 2월에 있었던 한양의 대화재 이후에 정한 여러 가지 제도는 조선조 금화제도(禁火制度)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방재대책은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수립되었다. 순식간에 인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화재에 대한 대책으로서, 순행(巡行)과 개화(改火), 그리고 금화(禁火)라는 항목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방재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양의 가옥 대부분이 초가로서 처마끝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화재가 나면 삼시간에 번져 대화재로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조치로 도로를 넓히고 가옥과 가옥 사이를 띄우게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방화담을 쌓도록 하였다. 또한 태종때에는 별와요(別瓦窯)를 설치하여 기와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으나 기와값이 비싸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sup>12)</sup> 태종 15년 9월에는 한성부에서 화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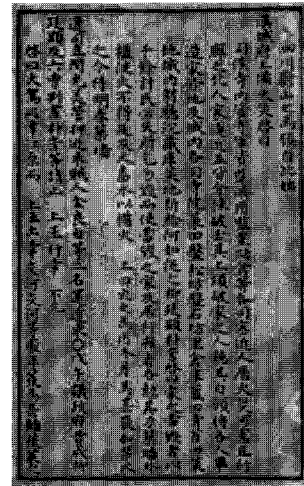


Fig. 2 A List of Fire Prevention

방비하는 계목을 올렸다.<sup>13)</sup> 세종 5년 6월에는 불이 지붕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붕에 진흙을 두껍게 바르도록 하였다.

문종 2년 2월에는 군자감(軍資監)은 도적과 화재가 두려우니 중국의 조정(朝政) 창고가 모두 벽돌로서 벽을 만들고 석회를 발라 화재에 대비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아 시행하자고 하였다.

온돌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발생했던 화재도 빈번하였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는 더욱 심하였다. 세조 10년 2월에는 제사(諸司) 창고의 토탑(土塔)을 철거하여 화재를 방지토록 하였으며 성종 원년 11월에는 종묘와 문소전(文昭殿)의 재실(齋室)은 화재가 날까 두려우니 온돌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였다.

태종 7년 4월에는 각 방(坊)의 한 관령(管領)마다 두 군데에 방화수(防火水)를 비치토록 하였으며, 세종 5년 6월에 정한 금화조건(禁火條件)에도 사다리 저수기(貯水器), 금

Table 1. A Conflagration of the Veritable Records of Chosun Dynasty

시 기	기 록
태종 8년 11월 5일	태평관(太平館) 서랑(西廊) 20칸(間)이 불탔다.
태종 15년 9월 19일	돈화문(敦化門) 서쪽 경상도(慶尙道) 군영(軍營)에 불이 나서 행랑 27칸이 연소(延燒) 되고, 불길이 장차 돈화문에 미치려 하매 힘껏 구제하여 방지하였다.
세종 8년 2월 15일	한성부의 남쪽에 사는 인순부의 종(奴) 장룡(長龍)의 집에서 먼저 불이 일어나 경시서(京市署) 및 북쪽의 행랑 1백 6칸과 중부(中部)의 인가 1천 6백 30호와 남부의 3백 50호와 동부의 1백 90호가 연소되었고, 인명의 피해는 남자 9명, 여자가 23명인데, 어린아이와 늙고 병든 사람으로서, 타죽어 재로 화해버린 사람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성종 14년 12월 4일	남대문 안 행랑(行廊)에 불이 나서 10여 칸(間)이 연소(延燒)되었다.
연산군 7년 5월 3일	장통방(長通坊)에 화재가 일어나, 집 42채가 연소(延燒)되었다.
중종 5년 4월 19일	왜구(倭寇)가 동평현(東平縣) 민가 12호, 동래현(東萊縣) 민가 1백98호를 불 태웠다.
중종 6년 12월 27일	남부 광통방(南部廣通坊)에 불이 나 잇달아 60여 집을 태웠으므로, 쌀을 내려 진휼(賑恤)할 것을 명하였다.

12) 태종 11권, 6년(1406 병술) 1월 28일(기미)

13) 태종 30권, 15년(1415 을미) 9월 21일(을묘)

수기(給水器)를 만들어 물을 담아 췌내(闕內)의 각 처(處)에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세종 8년 2월에는 췌내의 행랑은 10칸마다 개인집은 5칸마다 웅덩이를 하나씩 파고 관청 안에는 웅덩이를 2개씩 파서 물을 저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묘와 대궐안의 종루의 누문(樓門)에 붙이는 기계를 만들어 비치토록 하였는데 그 모양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세종 13년 1월에는 궁궐내의 건물이 높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에 오르기 어려우니 선공감(繕工監)에 명하여 근정전(勤政殿), 경회루(慶會樓), 사정전(思政殿), 문무전(文武殿), 인정전(仁政殿), 광연루(廣延樓), 모화관(慕華館)에 쇠고리를 연쇄하여 처마 아래로 늘어 놓았다가 화재시에 잡고오르게 하고 옥상에도 진화(鎮火)하던 자가 미끄러지면 잡을 수 있도록 역시 긴 쇠고리를 가로로 쳐 놓도록 하였다.<sup>14)</sup>

#### 4. 결 어

지금까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재해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당시의 재해에 대한 사고 및 재해대책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왕정(王政)의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가 선정(善政)과 악정(惡政)에 대한 하늘의 징계였다. 특히 통치 이념인 유교의 관념 아래서 천재지변은 군주의 정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징조였으므로 조선의 임금들은 천재지변이 나타나면 하늘이 자신을 질책한다고 여겨 수성(脩省)의 태도를 지녔다. 이에 따라 『조선왕조실록』에는 왕정의 주요 체크 리스트로 천재지변의 기사가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자연재해에 대한 조선시대 최대의 기록보존집으로 볼 수 있다. 특히 518년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의 기록으로서 이처럼 많은 자료를 담고 있는 사료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가 드물다.

건축물에 피해를 주는 재해에는 태풍, 지진, 화재, 수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당시에 대처할 수 있었던 재해는 수재 및 화재이었다. 수재는 불가항력으로 맞이하게 되는 자연에 의한 재해이었으나 화재는 인간의 부주의에 의한 실화 및 방화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사후대책이 함께 수립되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여 재해에 대처하는 기술이 현대의 건축재해예방기술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기본적인 건축재해예방대책의 제방법(諸方法)은 현대의 대책방법과 다를 바가 없다고 사료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과거에 발생한 재해기록(역사기록, 지질기록 등)을 재해 예방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재해 관련 정보도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풍부하고 활용가치가 높아, 이를 DB로 구축하고 건축기술사적(建築技術史的) 내용에 관한 입체적 해석과 이해를 시도한다면 당시 사람들의 재해극복에 대한 의지와 지혜를 알게 하고 더 나아가 한국건축의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건축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복합적인 배경적 요소들을 안고 있다. 건축주관자의 조영의지에서 공사시기나 규모, 기후조건, 자원확보와 자재의 수급사정, 인력동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향후 건축 재해예방 기술사(建築災害豫防技術史)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사료발굴은 물론이고 주변사항에 대한 폭넓은 학제적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1.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
2. 국역증보문헌비고, 누리미디어, 2000
3. 한국건축역사학회 엮음, 한국 건축사 연구 1, 2, 발언, 2003
4. 윤장섭, 한국건축사, 동명사, 2002
5.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0
6.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 재해예방 기획 연구, 2008년 12월
7. 이강훈 외1, 朝鮮朝 前期의 建築物 防災에 관한 史的 考察,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권 2호 통권 2호, 1985년 12월
8. 김현준, 조선시대 홍수기록조사, 한국건설기 술연구원, 1999

#### 감사의 글

이 기사는 2008년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건축문화재 재해예방 기획연구’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담당 : 정성진, 편집위원]

14) 세종 51권, 13년(1431 신해) 1월 2일(정묘)